

# 우수화장실 사진 및 용품전시회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문화 개선운동 추진하면서 가장 효과가 크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진행되는 화장실 관련 사진 및 용품전시회라는 생각이 든다.

글\_이 석 규(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과장)

전시회를 개최하는 도시의 화장실 실무담당자와 함께 용품전시회를 위하여 전국을 누비는 회원사들의 고생은 말로 다할 수 없겠지만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라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왜! 화장실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최도시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분위기만 보아도 전시회 개최도시의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미래가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전시회는 대부분 개최도시의 요청으로 추진되고 있어 비교적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지만 관람객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단체장의 관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주최 : (사)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개최도시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 기업은행
- ▶일자 : 4월 3일~4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 4월10일~12일, 경남도 (청사로비)
- 4월25일~26일, 진주시 (경남 문화예술회관)
- 5월 8일~10일, 김해시 (삼성 홈플러스)
- 5월 18일~21일, 구미시 (화합의 광장)
- 5월25일~26일, 전주시 (전북 학생회관)
- 5월30일~31일, 광양시 (청사로비)
- ▶참가 : 로알토토, 동우씨엠, 데코판넬, 시민텍, 향기마을사람들, 진성산업, 대우산업, 덕우, 대림콩크리트, 한국월드그린, 한국타올기산업 (11업체 회원사)

**김천시**는 전시회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에 타 도시의 모범적인 도시로 자리잡았다.

'예산타령만 하는 다른 도시'에 모범을 보여 주려는 듯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무담당자 까지 부족한 예산을 관심과 열정으로 채우는 것을 보면서 시(市) 승격 30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기대 이상으로 관람객이 많이 모인 것에 대하여 담당자는 "가장 쉽고 빠르게 시민들에게 화장실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스스로 청결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는데 전시회만큼 좋은 것이 없어서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였다.

**경상남도**는 강원도와 함께 도(道)단위에서는 대표적으로 화장실문화 개선이 잘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경상남도는 홈페이지에 우수화장실 사진 및 약도 등을 만들어 경남지역을 찾는 관광객



◀감천시 문화예술회관 전시회 개막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여 우수사례로 여러 번 선정될 정도로 화장실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관람객 수는 많지 않아 안타까웠다.

이것은 경상남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도 및 광역시와 함께 행사를 하면서 겪는 일로 광역급의 실무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자치가 앞서다보니 인원참석에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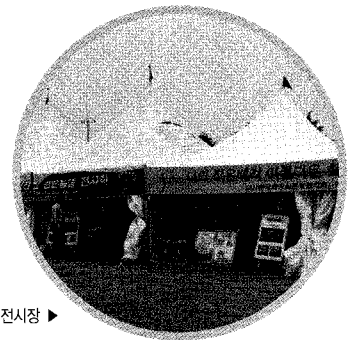
"물론 시·군·구에서는 다른 행사가 많이 겹쳐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비슷한 설명이 따르지만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원만히 행정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진주시**는 작년에 한국관광공사 선정 우수 화장실에 진주성화장실이 선정될 정도로 화장실을 잘 가꾸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많은 천곡사에 하천의 오염을 막고자 외관을 통나무로 만들고 자연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부분 까지 노력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전시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계층이 관람하고 특히, 전시회를 마치는 날까지 관람객이 많아 철수시간이 늦어지는 진기록을 세우는데 결정적

으로 함께 하여주신 강영훈 계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음 호에 계속)



구미시 화합의 광장 전시장 ▶



김해시 삼성 홀플러스 전시장 ▶